

회계학

(A)

(1번~20번)

(7급)

본 과목 풀이 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(회계기간)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 그리고 기업은 계속해서 「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」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. 또한 주어진 이자율은 연 이자율이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하고,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.

1. (주)서울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₩350,000이다. 2017년도에 (주)서울은 임의적립금을 ₩50,000, 기타법정적립금을 ₩60,000 적립할 예정이다. 이익준비금 적립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₩330,000이라면 2017년도 당기순이익과 배당 최대금액은 얼마인가? (단, (주)서울의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1/2에 미달되며 법정 최소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.)

	당기순이익	배당	최대금액
①	₩90,000	₩300,000	
②	₩90,000	₩330,000	
③	₩130,000	₩300,000	
④	₩130,000	₩330,000	

2. (주)서울의 2017년 중 상품매매 내역은 다음과 같고, 상품의 회계처리는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르고 있다. (주)서울의 2017년 상품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경우 각각 얼마인가?

일자	거래	수량	1개당 매입단가	금액
2017년 초	—	50개	₩100	₩5,000
3월 1일	매입	100개	₩110	₩11,000
5월 1일	매출	60개	—	—
9월 1일	매입	50개	₩120	₩6,000
10월 1일	매출	90개	—	—

	선입선출법	평균법
①	₩15,000	₩15,500
②	₩15,500	₩15,000
③	₩16,000	₩16,500
④	₩16,500	₩16,000

3. 다음 중 종업원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,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한다.
- ②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.
- ③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.
- ④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급여는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.

4. (주)서울은 20×1년 초에 액면금액 ₩100,000(액면이자율 8%, 만기 3년,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)의 회사채를 ₩95,0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. 20×1년 말에 동 회사채에 대해서 현금으로 이자를 수취하였으며 이자수익으로는 ₩9,500을 인식하였다. 동 회사채의 20×1년 말 공정가치는 ₩97,000이었으며, (주)서울은 이 회사채를 20×2년 초에 ₩97,500에 매각하였다. 이 회사채의 20×1년 기말 평가손익과 20×2년 초 처분손익이 두 회계기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?

	20×1년	20×2년
①	영향 없음	₩500 증가
②	영향 없음	₩1,000 증가
③	₩500 증가	₩500 증가
④	₩500 증가	₩1,000 증가

5.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가 없는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.
- ②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수익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 수도 있다.
- ③ 관련원가와 대응되는 정부보조금은 주주지분에 인식하는 방법과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.
- ④ 비화폐성 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명목금액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기록할 수 있다.

6. 20×1년 초에 (주)서울은 (주)나라의 보통주식 20%를 ₩1,000,000에 취득하면서 (주)나라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. 20×1년 초 (주)나라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₩4,500,000이었으며,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이 일치하였다.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보다 ₩200,000 높게 평가되었으며, 잔존내용연수 10년, 잔존가액 ₩0,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. (주)나라의 20×1년 순이익은 ₩100,000이다. (주)서울의 20×1년 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 주식은 얼마인가?

- ① ₩1,012,000 ② ₩1,016,000
③ ₩1,020,000 ④ ₩1,024,000

7. 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.
- ② 운용리스에서 리스료수익은 리스자산의 사용효익이 감소되는 기간적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 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한다.
- ③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된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금액이 감소되면 금융리스채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감소금액을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.
- ④ 판매후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인 판매자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즉시 인식한다.

8. (주)서울은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 후, 결산일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비용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. 2017년 기초와 기말소모품은 각각 ₩270,000과 ₩360,000이고 당기에 소모품 구매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₩700,000이다. 당기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소모품비는 얼마인가?

- ① ₩70,000 ② ₩610,000
③ ₩700,000 ④ ₩790,000

9. (주)서울은 20×1년 초에 액면금액 ₩10,000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. 동 전환사채는 액면이자율 8%, 만기 3년, 매년도 말 이자지급 조건으로 발행되었으며, 만기일 상황시에는 액면금액에 상환할증금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다. 사채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12%였다.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은 경우,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.)

20×1.1. (차)현금	₩10,000	(대) 전환사채	₩10,000
전환권조정	₩1,152	사채상환할증금	₩662

- ① 발행 시 전환사채의 장부금액은 ₩9,510이다.
- ② 전환사채 발행 시의 자본요소는 ₩490이다.
- ③ 20×1년 말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₩1,141이다.
- ④ 전환사채의 보장수익률은 시장수익률인 12%이다.

10. (주)서울은 2017년 1월 1일에 취득한 건물(취득원가 ₩1,000,000, 잔존가치 ₩0, 내용연수 20년)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. 동 건물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와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17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(감가상각비와 평가손익 포함)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? (단, 2017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₩930,000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.)

- ① 원가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₩20,000 더 많다.
- ② 원가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₩30,000 더 많다.
- ③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₩10,000 더 많다.
- ④ 공정가치모형 적용 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₩30,000 더 많다.

11. (주)서울이 2017년 수주한 장기건설공사는 3년 간에 걸쳐서 수행될 예정이며, 당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 할 수 있다. 계약금액은 ₩2,500,000이다. 진행기준 적용 시 진척도는 총 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을 사용한다.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,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17년도의 미성공사 계정과 진행청구액 계정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는가?

	2017년	2018년
당기발생원가	₩500,000	₩1,300,000
완성시까지 추가소요원가	₩1,500,000	₩1,200,000
대금청구액	₩550,000	₩2,490,000
대금회수액	₩450,000	₩2,000,000

- ① 미청구공사 ₩75,000 ② 미청구공사 ₩125,000
 ③ 초과청구공사 ₩75,000 ④ 초과청구공사 ₩125,000

12. 「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- ① 재정운용표에는 프로그램(정책사업)별로 원가가 집계·표시된다.
 - ② 재정상태표상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표시된다.
 - ③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이 별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은 재정운용표에 비교환수익으로 보고한다.
 - ④ 재정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무형자산 항목으로 표시된다.

13. (주)서울의 2016년 기말상품재고원가는 ₩100,000, 순실현 가능가치는 ₩95,000이다. 2017년 당기매입액은 ₩850,000이고, 기말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. (주)서울은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할 때, 2017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? (단, 2016년 말 재고자산은 2017년도에 모두 판매되었다.)

장부수량	실지재고수량	취득원가	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
100개	95개	₩1,100	₩1,000

- ① ₩844,500 ② ₩849,500
③ ₩850,000 ④ ₩855,000

	2016년	2017년
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	₩5,000,000	₩6,000,000
세무조정 금액 : • 영구적 차이	₩500,000	₩100,000
• 일시적 차이	₩(700,000)	₩900,000
법인세과세소득	₩4,800,000	₩7,000,000

법인세율은 2016년의 30%에서 2017년의 20%로 인하되었다. 이러한 법인세율의 인하는 2016년 11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른 것이며, 2017년 이후에는 20%의 법인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. 그리고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가정한다. 이를 토대로 하여 (주)서울이 2017년의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? (단, 2016년은 (주)서울의 제1기 사업연도이다.)

- ① ₩1,220,000 ② ₩1,260,000
 ③ ₩1,360,000 ④ ₩1,650,000

15. (주)서울은 2016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₩1,000,000에 취득하였다. 내용연수는 4년, 잔존가치는 ₩100,000,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. 기계장치에 대한 회수기능액이 2016년 기말, 2017년 기말, 2018년 기말에 각각 ₩490,000, ₩560,000, ₩325,000이라고 할 때, 2017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누계액과 포괄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? (단, (주)서울은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.)

	<u>손상차손누계액</u>	<u>감가상각비</u>
①	₩95,000	₩90,000
②	₩95,000	₩130,000
③	₩105,000	₩90,000
④	₩105,000	₩130,000

16. (주)서울은 11월 말에 다음과 같은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였다.

은행 측 잔액	₩6,000
은행 측 미기입예금	₩1,000
기발행미인출수표	₩(2,400)
회사 측 장부잔액	₩4,600

12월 한 달 동안 은행 측 자료에 따르면 다음 정보가 이용 가능하다.

입금액	₩8,520
출금액	₩12,520

11월 말 은행계정 조정항목은 12월 동안 은행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. 12월 말 현재 기발행미인출수표의 합계는 ₩360이고 12월 말 현재 은행 측 미기입예금은 없다. 12월 말 현재 주정 후 회사 측 장부잔액은?

- ① ₩640 ② ₩1,640 ③ ₩2,000 ④ ₩3,360

- ## 17. 유동비율의 증가 혹은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취득 이후 3년 간 감가상각한 기계장치를 장부가액으로 처분하면 유동비율에 변화가 없다.
 - ② 유동비율이 150%인 상황에서 미지급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유동비율이 감소한다.
 - ③ 유동비율이 90%인 상황에서 매입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유동비율이 증가한다.
 - ④ 보통주를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현금을 조달하면 유동비율이 증가한다.

18. (주)서울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.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작업별로 예정배부를 하고 있는데, 20×1 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시간당 W100이다. 20×1 년 한 해 동안 제조간접원가는 W52,500이 실제 발생하였으며 W2,500이 과대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리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예정 직접노무시간을 50시간 초과하였다. 20×1 년도 제조간접비 예산은 얼마인가?

- ① ₩50,000 ② ₩55,000 ③ ₩60,000 ④ ₩65,000

19. 「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상 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으로
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.

-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, 자연적, 문화적,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

- 공시한다.

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
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
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,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
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

- ④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 회계실체가 소유(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자원을 말한다.

20. 주서울은 2016년 1월 1일 액면금액 ₩1,000,000, 발행 당시의 유효이자율이 10%, 만기 3년의 사채를 ₩1,049,732에 발행하였다. 2016년 12월 31일 장부가액이 ₩1,034,705일 때, 표시이자율과 2017년 12월 31일 장부가액은 얼마인가? (단,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.)

<u>표시이자율</u>	<u>장부가액</u>	<u>표시이자율</u>	<u>장부가액</u>
① 10%	₩1,018,176	② 10%	₩1,019,678
③ 12%	₩1,018,176	④ 12%	₩1,019,678